함께, 더 나누니 여기가 연화장세계

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행사
조계종복지재단 '더 나눔'

17회 진행해 온 3000배 철야정진
'다함께 나누는' 후원행사로 확대
가수 양하영 · 장윤정 등 축하공연
BBS불교방송 5000만원 등 후원

"난치병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할거예요. 빨리 커서 후원도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힘내서 병을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김희성 · 김포 고창초5)

철없는 어린이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먼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난치병 어린이의 쾌유를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모두가 같았다. 다함께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세상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그곳이 바로 연화장세계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4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콘서트 '더 나눔'을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조계종복지재단이 17회째 진행해 온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의 확대 후원행사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단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정재계 인사와 봉사자들, 시민들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 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의 개회 선언에 이어 치사, 축사, 홍보대사 가수 양하영 씨의 공연, 모연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엔 정세균 국회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재인 · 안철수 대선후보 부인 등이 참석했다.


4월 23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콘서트 '더 나눔'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두 손 모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삶에 웃음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나누는 것으로 다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단 마음가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자리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 된 실천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사회적 모범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제 양극화와 소득격차가 심화될 경우 우리 사회 갈등은 깊어지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에 조계종이 주도하는 이번 행사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면서 "더 나눔 행사는 불교가 세상 속에서 중생과 함께하며 아픔을 보듬는 실천적 자세로써 종교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종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날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더 나눔' 후원 기금 5,000만원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에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부에선 '희망 그리고 발원'을 주제로 열띤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가수 장윤정 · 박완규, 홍보대사 김성녀 씨 등의 무대에 5000여 관객은 연꽃 야광봉을 흔들며 큰 박수로 화답했다.

가수 장윤정 씨는 "의미 깊은 나눔행사에서 노래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 자리에 '내가 나눔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큰 나눔 실천"이라고 축하했다.

가수 박완규 씨는 "5월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 다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 참여 하나은행 162-910021-37504, 우리은행 1005-003-175922, 농협 053-01-266838. 예금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군생활, 나를 위한 수행 시발점으로 삼기를"

마이산 탑사, 군부대 위문법회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육군 9585부대 호국 충무정사를 방문, 불자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월 23일 진성 스님과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밴드봉사단은 호국 충무정사를 방문해 불자장병들을 위한 봉축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마이산 탑사, 진안 광명사, 대구 혜인정사의 후원으로 불자장병 7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법문, 위문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장병들이 군생활 동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적용할 수 있는 명상법을 지도한 후 수행십과를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군생활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남을 위한 헌신적 봉사는 나눔의 시간이다. 군생활을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밴드봉사단은 신나는 최신 음악에 맞춰 신명나는 난타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진성 스님은 봉사단과 함께 우리 귀에 익숙한 색소폰 연주 실력을 선보여 장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어 각급 부대별 장병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졌으며 진성 스님은 장병들을 위해 피자, 통닭, 음료수, 과자 등 간식을 제공해 군생활의 노고를 치하했다. 진성 스님은 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충무정사 법회를 지원하겠다"며 "장병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등 푸짐한 간식을 준비해 장병들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육군 9585부대 충무정사는 한때 많은 불자장병들이 찾는 법당이었으나 최근 부대규모가 축소와 지역 불교계의 무관심으로 법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불청 천만불자 CMS모연 본격 시작

1구좌 당 1000원, 기부금은 포교기금으로 활용

대한불교청년회가 천만불자 모연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4월 28일 서울 종로 베이징코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초에 밝힌 천만불자 모연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불청 천만불자 모연사업은 불자인구 1000만명 회복과 복원, 청년불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목표로 2018년 12월까지 CMS구좌를 통한 기부금을 받는 사업이다.

1구좌 당 1000원으로 모연된 기금은 구체적으로 대불청 회원 가족 조사 및 데이터 자료 정리, 사찰 홍보와 청년불자 데이터 수집 정리, 불자 포교 프로그램 및 수행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 사용된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불교는 불자 1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감소가 두드러 지고 있다"며 "젊은 청년불자 포교 및 양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모연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스님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 곳곳에서의 포교를 청년회가 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불청은 이날 법회에 사용 가능한 의식절차를 담은 '법회' 앱도 공개했다. '법회' 앱은 스마트 법요집으로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청법가 등 모든 법회 집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대불청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북 구미 청소년수련원에서 제36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우리는 미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자! 화이팅!" 서울 태릉선수촌 컬링장에 난데없이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계사 동자승들이 4월 26일 평창동계올림픽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컬링 선수단을 찾아 응원전을 펼친 것이다. 8명의 동자승들은 컬링 선수단에게 '컬링 선수 힘내세요 파이팅!'이라고 쓴 그림과 연등을 선물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후 동자승들은 컬링 연습장에서 춘천시청 소속 컬링 선수들과 스위핑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덕현 기자**

선암사 템플스테이관 준공식 개최

"불교문화 통한 힐링 제공할 것"

천년고찰 백양산 선암사가 템플스테이 운영관 준공식을 개최했다.〈사진〉 앞으로 선암사는 템플스테이 운영관을 통해 불교문화를 국 · 내외로 알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암사(주지 원범)는 4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 운영관 앞에서 준공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나성린 前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내빈 소개에 이어 경과보고, 축사, 주지 원범 스님의 인사말씀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템플스테이관 준공에 도움을 준 나성린 前 국회의원 외 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지 원범 스님은 "선암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 하시고 그 후 선풍을 잇는 큰 스님들께서 주석하셨던 곳"이라며 "하지만 처음 주지로 부임했을 당시 이곳에는 해야 할 불사 숙제가 많게 느껴졌다. 오늘 템플스테이 운영관 준공식을 열면서 또 하나의 숙제를 푼 것처럼 생각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암사는 4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 운영관 앞에서 준공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선암사 템플스테이관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1018㎡ 건축면적 311㎡ 현대식 한옥형 건물이다. **하성미 기자**

봉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축

지혜 • 자비 • 정진
(智慧) (慈悲) (精進)

동국대학교가 개교111주년을 맞이하여 새 교훈을 선포합니다.

'일심동행'의 마음으로
학생들이 학문을 연마해 **'지혜'**를 깨닫고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사랑 1·1·1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국사랑 1·1·1 캠페인 (1인 1월 1만원 기부)
매월 1만원으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인재양성에 동참해주세요!
▶ 참여 방법 : 이 광고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1800-3283으로 보내주세요
▶ 기부 문의 : 02-2260-3300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